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월 31일(금)  
..(음력 1월 7일)..

Пятница  
31 января 2020г.  
№ 4(11687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7일(월) 대조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주요 영웅들로서 기념식은 사할린주 <승리>전쟁기념박물관에서 거행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승리' 전쟁기념박물관에서 승전 영웅들의 동상 개막

올해는 대조국 전쟁 전승 75주년을 기념한다. 사할린에 영광과 추념의 해를 맞아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27일(월) 대조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주요 영웅들로서 기념식은 사할린주 <승리>전쟁기념박물관에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군악대의 연주로 '승리의 상징'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개막했다. 청동으로 제작된 조각상은 홀 한가운데 세워졌고 승전 영웅 게오르기의 동상을 위로하고 아래는 기둥으로 받치며 기둥을 두르고 내려오는 청동 리본에는 상징들이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 정부 대표표와 종교계·군 관계자, 법조계의 인사들, 사관생도들이 참석했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대신해 주지사 행정 및 정부 총괄의 제1부지사인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행사에 참석했다.

"승리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우리의 호국 선열들이 손수 이뤄낸 과업을 유지하여 조국과 우리 민족을 보존할 수 있었고 전통과 문화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며 장래 국가 발전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쟁 시기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전승 75주년 기념은 의미상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기념일 훨씬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념 서적과 사할린 지역 영광의 기념비 책자에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념비와 기념물들을 개건하고 정비를 시행했다. 봉쇄가 해제된 오늘, 우리는 참혹했던 날들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추념하며 생존하신 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고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연설했다.

1월 27일은 레닌그라드 전 지역에서 봉쇄가 해제된 날로서 '봉쇄 시기의 빵' 행사를 진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전 러시아와 동시에 기념 수업이 이뤄졌다. 사할린주에서는 승전의 영광과 추념의 해 일환으로 180개 이상의 주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 활동에는 '추념의 초소', '추념의 벽', '승리의 정원', '게오르기 리본' 등이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담화, 강좌, 전쟁 영화 상영을 준비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사할린주, 의료클러스터 건설

사할린의 의료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중앙, 심혈관 외과, 정형외과, 구강학, 안과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체계와 질차로 심도있는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태평양 의료클러스터 건설 기획에 따른 시행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진료 및 상담센터 건물 옆 6층 건물을 양도 받아 이 건물을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우수 병원들의 사무실이 자리를 잡게 된다.

사할린 보건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장관의 말에 따르면 장래 의료클러스터 부지와 의료기관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여기에 의사를 타진한 국가들은 한국, 중국, 이스라엘이다. 국제 의료법에 따라 작업을 조직할 디지털 의료연구소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클러스터의 시설 하나로는 진료 상담센터도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레오노브 거리에 7층 건물을 짓고 여기에는 진료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의료 장비와 입원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조산센터는 유전학과 인공수정 분야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핵의학센터를 건립해 암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 병원에는 새로운 분야로 신경외과, 흉부조직 및 장기 외과를 신설하고, <시네고르스크 미네랄 온천수> 휴양소를 개건해 온천 단지를 건설, <다기>마을의 천연온천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알리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주민들이 치료차 사할린을 떠나지 않고 사할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클러스터 건설에 연방 예산과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클러스터의 주요 과제는 주민들의 기대수명을 78세 이상으로 늘리고 심혈관 질환, 종양 질환을 낮추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을 꾀하고 사할린과 다른 지역에 매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 단신

### 사할린주지사,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가위원회 개편을 위해 새로운 상임위원들을 임명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르 베글로브 주지사, 볼고그라드주의 안드레이 보차로브 주지사,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의 카즈베크 코코브 지도자,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트웨리주의 이고리 루체냐 주지사, 알타이 변경의 빅토르 토넨코 주지사, 바쉬키리아공화국의 라지이 하비로브 지도자와 쿠르간주의 와짐 슈코브 주지사가 임명되었다.

국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러시아 대통령이 정하고 6개월에 한 번 교체가 가능하다. 국가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의 주요 과제는 회의 의제 심의와 의결된 사항 실행에 대한 분석을 한다.

### 사할린주, 올해 대조국전쟁 참전자에게 보조금 7만5천 루블리 지급

사할린주에서 대조국 참전자들을 위한 일시 보조금을 인상했다. 올해 대조국전쟁 참가자들은 7만5천 루블리를 받게 되었다.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 주민, 파시즘 치하 미성년 포로, 노동전선 참전자들에게는 5만 루블리, 전쟁 시기의 아이들(1923년 6월22일- 1945년 9월 3일의 러시아 연방 국민으로서 출생자)에게는 1만 루블리를 지급한다.

이 보조금은 신청 없이 이들의 통장으로 4월에 송금된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일시 보조금 명목으로 사할린주 예산에서 2억5000만 루블리가 지출되어 사할린 주민 2만여 명에게 지급된다.

### 사할린주, 자원봉사자 대상 의료 포럼 개최

1월 3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포럼 주제는 사할린주 주민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보전과 강화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다. 포럼에서는 '주민통학' 연방 기획과 '사할린주의 약속 퇴치 및 건강식품을 포함해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동기 부여 조성'이라는 사할린 지역의 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2020년-2024년간 사할린주 주민들의 공공 보건 강화>라는 지역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할 다양한 행사장 마련되었다. 행사는 사할린주 보건부와 사할린주 의료방센터의 주최로 진행된다.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 새고려신문사에 고국의 정이 담긴 가훈을 전달

아리랑학회 기미양 연구이사는 러시아 한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15일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1주일간 극동연구소의 소장 자료를 연구하고 22일에는 사할린으로 들어와 사할린 주 역사고문서보관소에서 사할린 한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후 '가훈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왜 안보내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고시수 선생은 신문 광고를 내서라도 요청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기미양 연구이사가 설명했다.

그래서 고시수 선생은 사할린 동포들이 사할린 아리랑제 현장에서 고시수 서예가에게 주문한 가훈을 새고려신문사에 보내면서 요청하신 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사할린 아리랑제 추진단 기미양 단장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국의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사할린 동포들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훈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며 "2017년 사할린아리랑제에서 현지 동포들이 서예작품과 가훈, 한글과 한지 문화에 동화된 것 같다"고 했다. 기미양 단장은 앞으로 새고려신문사를 통해 계속 고국의 정이 담긴 가훈을 보내겠다고 했다.

2017년 사할린 아리랑제 현장에서 가훈을 주문하고 못 받은 분은 새고려신문 (43-72-94)로 연락 바란다.

(배순신 기자)

지난 27일(월) 기미양 연구이사는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이번 사할린 방문의 목적을 알리고 사할린 한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연구에 협조를 부탁하며 문경의 고시수 서예가의 부탁으로 신문사를 방문했다고 했다.

2017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아리랑제를 펼칠 때 문경시의 지원으로 사할린을 방문하게 된 고시수 서예가는 서예 휘호 퍼포먼스를 열어 사할린 동포들에게 가훈을 써주었다. 한국에서 준비한 화선지는 150장 뿐이어서 가훈을 받으려 하는 희망자가 많아 긴 차례를 기다리던 일부 관객들은 서예작품을 받지 못했다.

"연락처가 적혀 있는 주문 명단을 받았지만 그 명단을 분실했다. 그런데

## 모스크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고려인 문학' 교류행사 개최

사할린의 허 로만 시인을 초청

지난 21일-22일 이틀에 걸쳐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주러 대한민국대사관의 문화원에서 '경계 넘나들기 - 고려인 문학의 탈향, 이주, 정주의 삼각형'이라는 주제로 한민족 이산문학 교류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한국문학번역원,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모스크바 외국문학도서관의 공동 주최로 진행했으며 이에 유명 소설가인 김 아나톨리를 비롯해 러시아와 CIS지역에서 잘 알려진 소설가 강 알렉산드르·김 블라지미르(김용택), 시인 강 지아나와 김 마르타가 참석했다. 이 행사에 사할린을 대표한 허 로만(허남영) 시인은 지난 27일(월) 본사를 찾아 행사 이야기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두 나라 사이의 첫 번째 문학 교류행사라고 했다.

러·한 수교 30주년 해의 중요성 만큼 첫날 행사에 주러대한민국대사관의 이석배 대사가 참석해 참가자들을 따듯이 환영했다.

이 포럼을 계획한 한국문학번역원의 김 사인 원장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한국 문학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새로운 차원의 문화교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 로만 시인은 이틀간의 행사에서 ▲ 해외한인문학의 현장 ▲ 고려인으로 작가가 된다는 것 ▲ 고려인 이주의 떠남-움김-뿌리내림의 변주곡 등 주제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CIS 지역 문학가들 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 전문가, 이동순 한국 시인, <고려 사람>사이트 운영자인 한 블라디슬라브(우즈베키스탄) 등이 발제를 했다

허 로만 시인은 이 포럼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로 자신의 시를 낭독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며 "한 자리에, 한 피의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모여 교류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소회를 밝혔다.

(배순신 기자)  
(사진: 한 블라디슬라브)

## 이모저모

### 한·중·일 대학생들 타치야나의 날 기념

타치야나의 날(1월 25일 러시아 대학생들의 날)에 트로이츠크에 마을 문화회관의 직원들은 '대학생의 날 기념회'를 맞아 흥미로운 인지 프로그램에 외국인 대학생들을 초대했다.

외국인 대학생들은 중국의 하얼빈 전문기술대학,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 일본의 홋카이도대학에서 왔다. 이곳에서 대학생들은 외국어로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며 언어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이 조성한 명절 경연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주제로 했다.

'좁지만 화목하라.', '대학생들에게 나쁜 날씨란 없다.', '셀카', '시험'등, 창작 경연은 나무랄 데 없이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은 아직 러시아어의 습성을 배우는 중이긴 하지만 주어진 과제의 핵심이 한 마디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지도교수인 사할린 국립대 국제교류국 워토르 코르수노브 국장과 올가 마투쉬코와 전문가가 대학생들과 함께 했다.

"사할린국립대와 아나와 지역 문화 기관들은 벌써 수년간 협력해오고 있다. 외국인 대학생들은 우리의 대중문화 행사에 참석하길 좋아한다. 한 예로 지난해에는 페스찬스키마을에 개최된 활동교실에도 참가했고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러시아 동화 '콜로보크'를 공연했다. 대학생들과 아나와 지역 기관들 말고도 일본의 학교 학생들도 자주 방문하고 있다. 지역 행정부의 이런 기획 활동은 일본 히가시카와시와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화회관의 김 세르게이 관장이 전했다. 대학생들의 명절은 새해 분위기가 더해져 안성맞춤이었다.

1월 25일은 음력 달력에 따르면 은빛 쥐의 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고 아나와 행정부가 전했다.

### 학생들 из Китая,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отметили Татьянин день в Троицком

В Татьянин день (25 января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сотрудники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пригласил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н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позна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ень студента круглый год".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иехали на остров из Китая,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Это студенты Харбинск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а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ккайдо. Здесь

ребята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проходят языковую лингвистическую практику.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составили по мотивам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и. Твор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В тесноте, да не в обиде", "У студента нет плохой погоды", "Селфи", "Экзамен" — пройденны безупречно. Молодые люди еще пока только осваивают навыки русской речи, но суть предложенных заданий понимали, что называется, с полуслова. Студентов сопровождали их наставники —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вязям СахГУ Виктор Корсунов и специалист управления Ольга Матюшкова.

— Глав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вуз и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трудничают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Студенты-иностранцы любят посещать наши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 наприме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побывали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в Песчанском, а у нас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показали свою версию русской сказки "Колобок". Добавлю, что, помимо студен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учреждения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посещают и школьники из Японии. Такую планомерную работ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проводит в рамках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с городом Хигасикава,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ергей Ким.

Так совпало, что праздник студентов был приурочен новогодним настроением. Ведь именно 25 января, согласн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Белая металлическая крыса вступила в свои права, сообщает ани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 사할린 원주민 부족 공동체, 넙호어와 우일타어 문자 제작을 위해 대통령 장려금 신청.

<넙힌카> 부족 공동체가 노글리키구역 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북방 소수민족원주민의 언어인 넙호어와 우일타어를 컴퓨터의 글꼴로 제작하기 위해 총 120만 루블리 이상의 대통령 장려금을 신청했다.

"수년간 우리 도서관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민화를 수집, 보존, 출판하는 일을 해왔다. 이는 전세계에 약 5천 명 정도의 넙호족과 약 35만 명의 우일타족의 민화이다."라고 블라디미르 산기 명칭 중앙도서관의 올가 로즈노와 관장이 언급했다.

최근에는 지역 중앙도서관의 후원으로 동화와 시들의 인쇄물 발행 부수는 많지 않다. 그중 선집 '석녀(돌로 된 여인)', 우일타어의 전설 '용맹한 메르케', 산기 블라디미르의 시집 '나는 너와 함께 일찍이 떠날거야', 안젤라 무브칙의 음유시집 '영혼의 실토'가 있다.

현재로서는 출판 인쇄를 위해 적용이 된 일반 문

자를 사용하고 있다. 올가 로즈노와 도서관장은 각 언어는 고유한 문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장의 말에 따르면 문자는 의미 전달만 아니라 정신도 전달한다고 한다. 문자는 역사와 민족의 혼과 민족이 사는 지역의 생김새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문자는 독특해야 하며 책을 열어서 그것을 읽을 때 그곳 사람들과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전설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은 대대적인 준비 작업 중에 이 작업을 담당할 디자이너를 찾았다. 연구를 위해 그에게 민족의 문양과 함께 자료를 보내고 결과를 고대하고 있다.

### Сахалинская родовая община подала заявку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й грант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шрифтов для нивхского и уйльтинского языков

Родовая община "Нивхинка" совместно с Ногликской район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подали заявку в фон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на сумму более 1,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компьютерных шрифтов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нивхов и уйльта.

—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многих лет наша библиотека занимается собиранием, накоплением и изданием фольклора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населяют наш район. Это два таких редких народа, как нивхи, которых в мире всего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п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и уйльта, которых в мире всего 350 тысяч [человек], — говорит Ольга Рожнов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Под патронажем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печатаны небольшие тиражи сказок и стихов — сборник "Каменная женщина", уйльтинская легенда "Храбрый Мэргэ", поэзия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Я уйду с тобою спозаранку", сборник лирики Анжели Мувчик "Откровение души" и другие. Прав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для печати изданий используется обычный шрифт, проще говоря, адаптированный. Директор библиотеки Ольга Рожнова убеждена — каждый язык должен иметь с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шрифт передает не только смысловую нагрузку, но и духовную. Он передает историю, передает дух народа, передает черты той местности, где проживает народ. Поэтому шрифт должен быть особенный. Когда открываешь книгу и начинаешь ее читать, как бы оказываешься в том месте, с теми людьми, о которых повествует данная легенда.

Библиотекой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Найдены дизайнеры, которые взялись бы за это дело. Материалы уже отправлены им на изуч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национальные орнаменты. Остается лишь дождаться результата.

(8면에 계속)

### 주한인협회, 춤과 노래로 경자년 맞이

지난 2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설 맞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1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모신 이 행사에 사할린주 정부 및 시 정부 관계자, 외교관, 동포 작가와 시인, 주한인협회와 협력하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기관 대표, 민족단체장, 후원자 등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정성껏 마련해놓은 명절 식탁에 앉은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사회를 보는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한국어 - 두 언어로 소개를 하여 보기가 좋았다.

전통적인 음력설 인사인 '세배'를 이날 <에트노스>학교의 어린이들이 했다. 세뱃돈은 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이 나눠주었다. 사회자들은 "2020년 경자년"이라며 "예로부터 흰 쥐는 생명력이 특별하고 지혜가 뛰어나다는 기록이 있고 쥐띠는 재산을 모으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상당히 재산을 모으게 된다"는 정보를 전했다.

축사를 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이날 함께 음력설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참가자들을 사할린주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사할린주 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렉세이 프리즈크 제1부시시장 등이 축하했다. 바이다코브 부지사는 이날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보급에 나선 사할린주 한인협회 부회장인 임 엘위라 사할린국립대 언문역사동양학대학 학장, 사할린주 한국어교사협회 회장인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 사할린국립대 최 인나 한국어교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광기동 소장은 "2020년 새해를 우리 동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1년 정도 사할린에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사할린이 점점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는 것 같다. 출장소장으로서 한인협회를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명절 공연은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의 무용(<개나리>무용단, <도라지>무용단, 지도교사 김 옹게니야), 타악기(<태양>팀, 지도교사 신 올리야) 멋진 무대와 사할린 동포가수인 강팔용, 최 올리야의 훌륭한 가창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러시아 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쿠노 카후히로 총영사, 사할린주 사회원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의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내외 등이 동포들과 명절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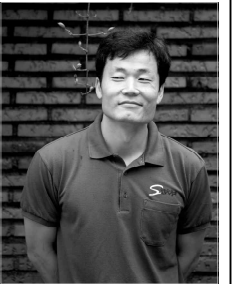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이날 전통적으로 먹어야 하는 떡국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강팔용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춤도 즐겁게 추며 음력설을 즐겼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거짓말

이십여 년 전에는 광주광역시 상무대가 있었다. 병아리군인인 이등병들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나도 두어 달 그곳을 거쳐 밤기차를 타고 북한이 코앞인 최전방으로 가게 되었다.



기차가 한 시간 반쯤 달리면 여자 친구가 사는 아파트를 지나가게 된다. 나는 새벽 일찍 전화를 걸어 여자 친구에게 부탁했다. 새벽열차가 지나갈 때 창가에 서 있어 달라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서울을 향해 자정쯤 출발하는 기차 안에는 이등병들의 흥분과 떨림이 가득했다. 이등병들은 기차길 옆, 누군가의 방을 밝히고 있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다가 하나 둘 잠이 들었다.

나는 잘 수 없었다. 여자 친구가 사는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밖으로 튀어 나올 것 같았다. 옆자리에 있던 동기가 기지개를 켜며 내게 왜 자지 않는지 물었다.

내 대답은 동기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여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소식이 앞자리, 뒷자리로 퍼져자 수많은 이등병들이 눈을 부비며 썩튼 콩나물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역에서 멈췄던 기차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아파트가 가까워졌다. 기차길 옆 아파트, 불켜진 새벽 창가에 서있는 여자를 찾으려 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오른쪽 창으로 몰렸다. 점점 가까워진다. 저 아파트다. 103동이 보인다. 육 층, 불켜진 창이다!

그 순간 하행선 화물 열차가 우리 기차를 지나가며 차창을 가렸다. 이등병들의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길기도 길었던 화물열차가 지나가자 우리 기차는 이미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다.

꽤 늦, 조는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강 철교를 건넜다. 제대할 때까지 복무할 부대를 찾아갔고 얼마 뒤 여자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

창가에 서있는 나를 보았느냐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울고 싶었지만 애써 웃었노라고. 어느 기차인지 몰라 동이 틀 때까지 서있었노라고.

나는 답장에 거짓말을 썼다.

광주에서 김남중

### 포로나이스크구역, 나와가잡이 마감

포로나이스크구역의 수산업체들이 나와가잡이를 마감했다. 포로나이스크구역의 <드루즈바>업체, <포로나이스크 즈베로솅호즈>유한회사, <포로나이스크 엘페제>유한회사와 마카로브구역의 <리바크(어민)>유한회사는 2주간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나와가 3816.7 톤을 어획했다고 전해졌다.

수산업체들로서는 좋은 결과로 보고 있다.

(사할린주 수산청 자료에서)

###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충북 최초 시행...올해부터 1인당 월 5만원 지원  
예산 4000여만원 들여 다양한 복지사업도 추진

음성군이 이달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생활 안정지원' 제도를 시행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영주귀국 한인 주민지원 조례를 개정해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2020년 본예산에 2천500여만원을 확보한 군은 올해 1월부터 1인당 월 5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할린 한인인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귀국을 시작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영주귀국 확대사업으로 2천명 이상이 영주귀국했다.

음성군도 2009년 음성읍에 사할린동포 70명이 집단 이주해 생활했으며, 2020년 1월 기준 사망 또는 다른 시·군 전출 등으로 30명이 감소한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음성군 거주 사할린 한인 평균연령은 74세로 대부분 70세 이상이고, 그중 10%의 80대 사할린 한인은 경제적, 자립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사할린 한인 주민의 자립생활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16년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5월 전국에 있는 사할린동포 600여명을 초청해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전국 사할린동포 초청 한마음 대회를 열어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10월 사할린동포 고국 문화탐방사업으로 삼천포 일원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영주귀국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외에도 사할린 방문 시 항공료와 장례비, 각종 문화체험행사 지원 등 사할린 한인 복지증진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사회단체와 기관, 기업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특히 음성군은 올해도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천7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생활안정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생활안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사할린 어르신들이 고국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충청매일]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тметили Соллал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Соллаль — Новый год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остояли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ллаль — это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и популярных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о традиции его принято встречать в кругу семьи, ездить к родителям, одеваться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Отметить его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молодежь.

Со сцены собравшихся поздрави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Фризюк. Он пожелал, чтобы год Белой металлической крысы принес в семьи мир, добро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а также здоровья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города. Кроме того, отметили и ро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охранении самобытно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поблагодар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города за оказываемую поддержку.

Также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 словами поздравлений выступил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Со сцены прозвучали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ля собравшихся выступили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танцам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и друг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по обмену в сфере литературы раздел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21-22 января в Москве,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ся литературный Форум по обмену в сфере литературы раздел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Институтом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местно с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библиотекой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 М.И. Рудомино. Он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ис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з СНГ, среди которых писатели Анатолий Ким (Россия), Владимир Ким (Узбекистан), Александр Кан (Казахстан), поэтессы Марта Ким и Диана Кан, создатель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Владислав Х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эт Ли Донсун, профессора-литературовед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л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поэт Роман Хе.



Слева направо: профессор Ким Хён Тхэк, редактор "Корё сарам" Владислав Хан, поэтесса Марта Ким,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а, поэт Ким Саин, писатели Александр Кан, Владимир Ким (Ёнг Тхек), Анатолий Ким, поэт Роман Хе, поэт Ли Донсу поэтесса Диана Кан. Москва. 22.01.2020 г.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подин Ли Сок Пэ.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ересекая границы: побег,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и становление — три веки, отраженные в литератур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участники поговорили о литератур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идентич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места,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 творчество пис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иглашая собравшихся к диалогу, классик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Анатолий Ким сказал: «Вопрос о том, к чьей литературе относится любой писатель, очень прост - писатель относится к т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е, на ка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ет свое творчество. Но для нас, писателей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 этот не так прост. И вопрос о свое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аждый понимает и решает по-своему. И доказывает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Вернувшийся из поездки поэт Роман Хе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Форума.

«Вслушиваясь в доклады директора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а Ким Саина, профессора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



ков Хангук Ким Хён Тхэка, литературоведа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а Со Хёнбома, я вспоминал изречение Екклесиаста «Время разбрасывать камни, и время собирать кам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ынешняя Корея уделяет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живущим в России, странах СНГ, Китае, Японии, США, Франции. И это — отрадное явление. Меня, как уроженца Сахалина, тронули слова поэта Ким Саина: «Корейцы из России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полувека не могли посетить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Это было особенно мучительно для корейцев с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 признался островной поэт.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Владислав Хан

### Всё больш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ужчин берут отпуск по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В РК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отцов, которые берут отпуск по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22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сообщили, что среди 105.165 человек,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таким отпуско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21,2% пришлось на мужчин.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читают, что такая тенденция связана с развитием новой культуры, когда мужчины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с женщинами занимаются воспитанием детей, а также увеличением размера выплат в период такого отпуска. 56,1% мужчин, взявших отпуск по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приходится на сотруднико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KBS World

###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5 янва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  
<http://www.sakhalinedu.com>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реклама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72-34-60, 72-22-03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деляет Китаю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5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в четверг решение выделить Китаю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на борьбу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ов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а 5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30 января,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ённых во всём мире превысило 7.700 человек, умерли 170 человек.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сутки подтверждены 1.737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и 38 смертей, в том числе, 37 – в провинции Хубэ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цент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город Ухань.

## Эваку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з Ухана откладывается

В график вылетов чартерных самолётов, которым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достав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родину из китайского города Ухань, эпицентра нов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а,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править в Китай 30 и 31 января по два самолёта. Однако,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30 января может быть отправлен лишь один самолёт, который доставит на родину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Точное время вылета неизвестно.

Дальнейшие планы эвакуации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с кита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В ночь на 30 января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К в Ухане уведом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об изменении графика эвакуации, попросив подождать новых сообщений.

Из Ухана планируется эвакуирова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70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 данным источников, китайские власти неоднократно меняли графики эвакуации из Ухана граждан других стран. В частности, они не разрешили Японии отправить в один день два самолёт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меняли график эвакуации граждан США. 29 янва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14-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эвакуированных из Китая в городах Чин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и Аса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Для их размещения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здания учебных центров для госслужащих.

## Власти КНДР принимают жёсткие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проникнов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вого типа

В КНДР принимаются жёсткие меры по недопущению проникнов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вого типа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В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29 января в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партийные структуры должны подходить к вопросу недопу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как к серьёзной задаче, связанной с выживанием страны.

Такое внимание к борьбе с инфекцией не совсем обычно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ластей. С 28 января в КНДР объявлен чрезвычайный карантинный режим.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Синьйчжу, куда прибывают иностранцы, установлены инфракрасные термометры для измерения температуры тел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водится проверка населения. Ещё раньше был введён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Кроме тог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месячном карантине всех китайцев, прибывших с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за прошлый год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30 тыс. долла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составил 31.791 доллар, снизившись на 1.555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27 января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Банка Коре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нее,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публиковало прогноз о том, что в 2019 году рост экономики составит 1,2%. Учитывая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ВП РК 2019 года, ка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оставляет 1 квадриллион 916 трлн 219 млрд вон или 1 трлн 640 млрд долларов.

Нынешняя отметка выведена с учётом ВВП 2018 года, среднего курса вон к доллару в 2019 году, а такж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ниж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фиксируется впервые за четыре года после 2015 года, когда снижение составляло 512 долларов.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влиянием таких факторов, как ухудшение ситуации на рынк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сугубление торгов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США и Китая, а также общий спад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Напомним, что отметка в 30 тыс. долларов была впервые зафиксирована в 2017 году. Если прогноз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улучшению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оправдаются, то это обусловит рост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RKI)

## МИД Кореи открыл "Арктический клуб"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создало "Арктический клуб в Корее", где помимо хозяев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ми государств Арктики, включая Россию.

Соглас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у МИД РК заявлению, вчер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Арктического клуба в Корее", где арктиче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слами, а Корея -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МИД РК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рктике Квон Се Чжуном. Судя по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фотографии, от РФ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клуба был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уле Андрей Борисович Кулик. Среди прочих (помимо России и Кореи) государств-участниц этой новой структуры - США, Канада, Норвегия, Финляндия, Дания и Швец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заседания клуб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неофициальном формате, но там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самые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арктическому региону. Согласн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о-

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вон Се Чжуна, они намерены обсудить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гионе, загрязнение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глоб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иные вопросы. "Надеюсь, что общение с послами арк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может более глубоко обсудить все проблемы Арктики", - сказал Квон.

Отмет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еде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части изучения полярных регионов - Арктики и Антарктики. Учитывая, что РК не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торое имеет соб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с Арктикой, то корейцы возлагают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Также компании РК проявля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рузов из Кореи в Европу.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включено в концепцию "Десяти мос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Ф и РК, которая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ую стратег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осквы и Сеула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торговл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Количество прибывших в РК северян достигл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 18 лет отмет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прибыли 1.047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Это мин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 2001 года. Об этом 27 января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з них 845 человек это женщины.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229 человек, во втором 320, в третьем 226, в четвертом 272 человека. Количество северян, которым удалось перебраться в РК, постоянно росло с 2000 года, в 2009 году достигнув максимальной отметки в 2.914 человек. Затем показатель начал снижать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2012 году в СК к власти пришел Ким Чон Ын, отметка в среднем держится на уровне от 1.100 до 1.500 человек. Среди причин снижения потока беженцев указывается уси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мер контроля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расхо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бегством из КНДР. Однако, есть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многих сдерживают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й неудачи в закреплении в РК. В этой связи ме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ке северян в налаживании жизни на новом месте.

KBS World

## В РК подтверждён четвёртый случай заболевания пневмонией нового типа

В РК подтверждён четвёртый случай заболевания пневмонией, вызванной новым вид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55-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ец вернулся 20 января из поездки в китайский город Ухань, где впервые зафиксирован очаг заболевания. 21 января он обратился в больницу с симптомами простуды, а 25 января из-за повышения температуры и боли в мышцах пациент вновь попал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26 января у него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налич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вого типа. Незадолго до этого 54-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ец стал третьим пациентом с таким диагнозом. Известно, что он проживает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Ухан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н проходит лечение в больнице Мёнчж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20 января он прибыл в РК. Через два дня мужчина почувствовал озноб, а уже 25 января появился кашель, после чего он обратился в службу поддержки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В тот же день пациент был помещён в карантин.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в РК зафиксировано 48 человек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симптомами. Из них у 47 человек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не подтвердилось и они выписаны из карантина.

KBS World

## Корейск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Air Seoul начнет летат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лоукостер Air Seoul намерена расширять географию полетов.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на веб-сайте компании, среди новых маршрутов, которы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 открытию в 2020 году, значится в том числе и рейс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а. Кроме того, лайнеры авиакомпании начнут также летать из Инчхона и Сеула в города Тайваня, Китая и Вьетнама.

Как отметили в компании, они намерены сохранить статус лоукостера, но при этом будут улучш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ерелета. В самолетах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бесплатный сервис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ов, увеличи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между сиденьями, а также закупить новые самолеты.

"Разразившиеся в 2019 году различ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фликты серьезно сказались на наших показателях, - признал президент Air Seoul Чо Гю Ён, имея в вид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торговый спор, который привел в том числе и к бойкоту корейцами путешествий в Японию. - Однако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это помогло нам: мы быстрее, чем планирова-

ли, провели смену географии полетов,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в направления", - сказал Чо, выразив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в новом году ситуация будет лучше.

Напомним,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оукостер Air Seoul является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ей второго крупнейшего перевозчика авиакомпании Кореи Asiana Airlines. Air Seoul начал полеты в 2016 году, флот насчитывает семь лайнеров,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вершают рейсы по 19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Японию, Вьетнам, Малайзию, Камбоджу, Филиппины и на Гуам.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открыт маршрут 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Этот город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ых достоинств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корейцы называют географическую близость к Корее, что позволяет всего лишь через два часа полета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российской/европ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роме того, для корейцев цены на гостиницы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есьма умеренн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из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ов Южной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полусотн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Год памяти и славы

Церемония,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которой стали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стоялась сегодня в музее «Побед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а под игру во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здесь открыли скульптуру, олицетворяющую «Символ Победы». Бронзовую композицию установили в центре атриума.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брамленную по всему периметру лентой стелу со статуей Георгия Победоносца наверху.

В числе приглашенных на церемонии была ветеран войны и труда Декабрина Пушкарева. Кавалер ордено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 и II степени, она участвовала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На фронте была старшим сержантом и санинструктором 79-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Недавно Декабрина Михайловна отметила 95-летний юбилей.

— Эта скульптура стала нашей сбывшейся мечтой, символом славы и памяти о событиях тех лет. Мы не забываем имена товарищей, с которыми вместе прошли через тягот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се они достойны бессмертия в нашей памяти, — рассказала Декабрина Пушкарева.

В сегодняшнем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юнармейцы, кадеты.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с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День Победы — это самый важный для всех нас праздник. Мы с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нашу страну, нашу нацию, продолжить дело наших предков — строить си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о своими традициями и культурой, определять собственный выбор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правду о событиях военных лет. И празднование 75-летия Победы имеет в этом смысле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Мы начали готовиться к этому событию задолго до юбилея. Наполняли новым содержанием Книгу памяти и Книгу памятников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риводили в порядок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памятники и мемориалы. И сегодня, в день снятия блокады, мы чтим память всех, кто погиб в эти страшные дни. Отдаем должное тем, кому удалось выжить.

Сегодня, в День снятия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рошла акция «Блокадный хлеб». Одноименн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урок памяти состоялся в школ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го в рамках Года памяти и слав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ут более 180 тема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Это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Стена памяти», «Сад Победы» и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роведут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выставки.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ведут беседы и лекции, организуют просмотры военных фильмов.

## Круп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инвестпроек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Москве

На выездном итоговом совещании, прошедшем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2019 год и обсуждались планы на средне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се глав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 Мы с участием губернаторов подводим итоги 2019 года и делимся видением планов на 2020 год. Считаю это важным. Только работая единой командой, мы сможем добиться выполнения нашей главной задачи —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подчеркнул Юрий Трутнев.

Как отметил вице-премьер, индекс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ДФ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превысил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102,4%) и составляет 105,8%. Инвестиции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на одного занятого — на 50%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и составляют 238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РФ — 158,5 тысяч рублей). Рост среднемесяч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ДФО идет более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103,1%),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102,3%).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ро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вышен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ак, на островах в ближайшие 5 лет планируют реализовать более 10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тройиндустрии, транспорте, лесной и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ефтегазовом комплекс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м хозяйств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робно остановился на двух проектах — Сахали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парке и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парке «Корсаковский».

Сахалин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разместя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учебные, складски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мощности и социально-бытовые объекты сервис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Здесь соз-

дадут около тысячи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уже началось. Сейчас возводится контейнер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перевалки приходящих грузов. Окончание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намечено на 2021 год, вторую завершат в 2024 году.

Создани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веде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Объект позволит втрое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которые нефтегазовые компании получают в регионе.

А в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парке «Корсаковский»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первое в России модульное домостроение.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более 4,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 В основе проекта — комбинат, на котором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вать продукцию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готовности. Мы сможем круглогодично возводить жилье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 детские сады, поликлиники и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е пункты. Возведение модульных зданий не только быстрее, но и экономичне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Корсаковский» начнетс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Юрий Трутнев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ы остров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месте с тем, полпред сообщ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илить работу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ализуется 2176 проектов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ой. Общая сумма заяв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евышает 4 трлн рублей. В рамках эт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о 44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из которых 16 тысяч — в 2019 году.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иходится 33%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ложенных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за 5 лет. В целом мы научились применять целостную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о вклад в эту работу у регионов разный. Он зависит и о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ы, и от налич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от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команды губернатора, — считает Юрий Трутнев.

На совещ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под 2% годовых.

— Это но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ьше её не было. Молодые семьи, которые не могли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купить квартиру, теперь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жилье. Губернаторам нужно взять выполнени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У людей этот проект востребован, он им нужен, — отметил вице-премьер.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одробно обсудили реализаци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целому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оставлены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повышени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увеличение суммар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рождаемости, снижение в 2 раза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и другие. Главы субъектов возьмут выполнение этих показателей на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Юрий Трутнев поручил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вместе с глав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ы, рассчитать коэффициент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 всем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боты как д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так и для кажд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 Делать это мы естественно будем вместе с вами, с учетом всех условий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ложившихся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 подытожил он.

##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памяти по случаю 76-летия полного снятия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Первым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та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Блокада. 900 дней — Голод. Холод. Смерть... Победа!». Оно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е №8 имен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Г. Асапов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ти, педагоги, ветераны и свидетели страшных событий.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ероприятия юн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выдали карточки образца 1942 года. По ним можно было получить кусочек хлеба в 125 граммов — именно столько в сутки полагалось жителям Ленинграда во время блокады.

—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т сохраня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память, и,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 передавать ее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Люди всегда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о страшных событиях тех лет, — подчеркну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то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Ульяна Приходько.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видетели блокады — жители Ленинграда, пережившие те страшные события. В знак уважения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встретили их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Затем была показана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хроника, в том числе — дневник Тани Савичевой. Школьница вела записи о блокаде. На страницах — даты смерти близких людей — матери, бабушки, сестры, брата и двух дядей. Сама Таня умерла уже в эвакуации — 1 июля 1944 года, в возрасте 14 лет.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етеранам и блокадникам вручили цветы.

— Вспомнились эти трудные годы, наше детство и юность. Мы пережили голод, холод, бомбежки — зимы были очень суровые. Похоронные команды не успевали убирать тела умерших людей. Важно помнить об этом, чтобы такое никогда не повторялось,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Мигунова Нина Викторовна.

Блокада Ленинграда началась 8 сентября 1941 года и длилась почти 900 дней. В кольце оказались почти три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Сообщение с городом поддерживалось по воздуху и «Дороге жизни» — льду.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смогли прорвать кольцо блокады в январе 1943 года, а окончательно она была снята 27 января 1944 года.

Отметим, 27 января в День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к всеобщему уроку памяти «Блокадный хлеб» присоединят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ройдет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тема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детском 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Теремок», центре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А на базе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 О.П. Кузнецова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книжные выставк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и рейтинг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74 организации получили оценку «хорошо» — уровень рейтинга «Б». Отл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и рейтинг «А» заслужили 7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ой рейтинг каждый год составляют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жилищной 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ы для оценки выступают результаты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по итогам года, а также данные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Оценку «отлично» получили пять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ОО «Бирюза», ООО «Сакура-плюс», ООО «УК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ООО «Александрит» и МУП «Тепло»), а также две — Охинского (ООО «Управдом Тунгор» и ООО «Единство»). Эти УК получили 55-56 баллов.

—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жителями и председателями советов, которые есть в каждом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Не менее важно — отношение коллектива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к своим обязанностям. Нужно такж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и контроль со стороны жителей, создание территор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проживания в доме и благоустроить территорию во дворах, — считает глава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Сакура-плюс» Дмитрий Силачев.

Среди «хорошистов» многие компании набрали 53-54 балла — лучший показатель в группе «Б». Так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ООО «Стандарт»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ООО «Корсаков-плюс» и ООО «МИР»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ООО «Доверие»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ООО «Жилсервис»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ООО «УК «Бумажник»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ООО «Курилстро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ООО «Ника-плюс» и МУП «Тепловые сети»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а также ООО «УК «Роз-хаус» и ООО «УК-Прогрес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за все время ведения рейтинга оценку «хорошо» заслужило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11 УК, которые имеют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жалоб, неисполненных предписаний, протоколы с нарушениями лицензио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получили низко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25-27) и рейтинг «Г». Предельно низкий уровень «Д» не был присвоен ни 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Цель составления такого ТОПА — выявить самые добросовестные и эффективны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зволи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е право при выборе УК. А самим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рейтинг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равить недостатки в работе.

Кроме того,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оценки учитываются в конкурсе «Лучш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у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участии Ассоциации «ЖКХ-СЕРВИС»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жилищной инспекции.

В 2020 году конкур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пятый раз по номинациям: «Лучш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Лучш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7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Документы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лять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p.sakhalin@mail.ru.

С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http://doveriesakh.ru/news/prodolzhaetsja-prijom-zajavok-na-konkurs-luchshaja-upravljajushhaja-kompanija-sahalinskoj-oblasti/> 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2-42-91.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고려인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첫 등재

## 고려인 작가 소설·희곡 등 23권 국가지정기록물 13호로 영구 보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보관 중인 고려인 관련 기록물 23권이 국가지정기록물(제13호)로 첫 등재됐다고 고려인 마을 측이 19일 밝혔다. 고려인 육필원고 기록물 중 극작가 김해운의 '장화 홍련' 표지.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 씨 제공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 보관 중인 각종 고려인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첫 등재됐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에 전시되며,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영구 보관된다.

1월 19일 광주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등재된 고려인 기록물은 고려인 유명 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남긴 소설, 희곡, 가요 필사본 등 육필원고 21권과 고려극장 80여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첩 2권 등 총 23권이다. 고려인 기록물은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제1호), 조선말근사전 편찬원고(제4호),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제12호) 등에 이어 제13호 국가지정기록물이 됐다.

등재된 고려인 육필원고 기록물은 고려극장 1세대 극작가 김해운의 희곡 8편, 2세대 극작가 한진의 희곡 8편 및 소설 1편, 고려인 1세대 산문작가 김기철의 소설 2편, 기타 가요필사본 2편 등 고려인 모국어 문학작품이 대부분이다.

희곡 8편이 등재된 극작가 김해운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와 193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설립된 고려극장(조선극장)의 창단멤버다. 1950년에는 사할린으로 건너가 조선극장을 크게 중흥시켰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희곡 '동북선'(1935년)은 항일노동운동을 다루고 있다.

9편의 작품을 등재목록에 올린 극작가 한진은 탁월한 고려인 2세대 한글문학작가다. 1964년부터 1993년까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다. 미학적으로 세련된 희곡작품을 통해 고려극장의 전반적 연기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중편소설 '공포'(1989년)는 고려인 강제이주의 참상을 가장 실감나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최초의 고발작품이다.

고려인 기록물을 소장한 김병학 씨는 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민간한글학교 교사, 재소 고려인신문 고려일보 기자,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센터 소장 등으로 일하다가 2016년에 귀국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동안 1만여 점의 각종 고려인 유물들을 수집했다.

[출처: 국민일보]

### [우리말로 깨달다]

## 속이 상하다

'속'과 '안'은 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같이 쓰는 말이나 반대말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의 경우는 반대말로 쓰이는 게 '겉'입니다. 속이나 겉이나 주로 대상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겉이라는 표현도 표면이라는 의미로 대상의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면 안의 반대말은 주로 '밖'으로 표현합니다. '안팎'이라는 말로 함께 쓰기도 합니다. 밖도 붙어있는 경우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주로는 떨어져 있는 경우에 쓰입니다. 밖에 나갔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겉에 나갔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따라서 우리가 속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상과 붙어있는 느낌이 강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어휘라는 게 살아있는 미묘한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측면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터널 안과 터널 속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과 집속, 머릿속과 머리 안 이런 표현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몸속과 몸 안의 구별은 어떤가요? 복잡하지요. 구별이 되는 듯도 하고, 안 되는 듯도 합니다. 구별이 될 때도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설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속이라는 말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 몸속이라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속이라는 말이 대상과 붙어있는 것이고 할 때 마음속은 마음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몸속도 마찬가지로 몸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속이 아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몸속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는 안주 없이 술을 마셔도 속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만, 내 속에서 썩어문드러지는 생각들 때문에도 속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속상하다'입니다. 속이 상했다는 의미로 상(傷)은 한자입니다. 상처(傷處)라는 말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상하다'는 말은 물건이 깨지거나 헐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음식이 상하거나, 몸이 상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감정이나 기분이 상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속상한 일이 생겨서,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내 속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보통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나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속이 상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상함의 원인에 가까운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많은 고통스런 소식들이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게로 와서 속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기어코 헤치기까지 하는 건가요? 세상이 점점 우울해 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우리를 더욱 속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도움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속상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이 속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며 삽니다. 참 무거운 말입니다. 어쩌면 내 속이 다 썩어서 편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인 듯합니다. 속이 상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몸속이 상하면 내 몸이 상하고, 그 상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표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표정(表情)은 내 감정이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속이 상하면 당연히 내 감정이 어두워지고, 그대로 겉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운 표정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웃지를 못합니다. 아예 낮빛이 검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속이 상하면 몸속도 상하고, 몸속이 상하면 마음속도 상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얼굴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속상한 일이 좀 줄어서 내 겉모습도 조금씩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이들도 조금씩 밝아지기 바랍니다. 상한 속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집착을 속에 쌓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옆에 있는 속상한 이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되겠네요. 속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안내

1.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19.11.17 ~ 2020.2.15
2.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3. 신고 및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 공관방문 (283B, Lenin St. Yuzhno-Sakhalinsk, 693008)
  - 우편/전자우편 이용 (ovyuzhnosakhalinsk@mofa.go.kr)
4.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기간 : 2020.4.1 ~ 2020.4.4. (08:00-17:00)
5. 투표 장소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283B, Lenin St. Yuzhno-Sakhalinsk)
6. 투표 시 준비물 :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21 созыва за рубежом: 2020.4.1 - 2020.4.4 (с 08:00 до 17:00)

5. Место голос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693008,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Ленина, 283Б)

6. При себе име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аспорт,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ая карта гражданина,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гос.служащего и т.д.)

\*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переехавшее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РК(имеющее гр-во РК),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выборов с 1 по 4 апреля 2020 г. при услови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до 15 февраля 2020 г.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6-24-30.

※ 영주권자 1세(대한민국 국적 보유) 중 재외선거 기간(4.1.-4.4.)에 사할린 체류예정인 분도 2.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사할린 출장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출장소(+7-4242-46-24-3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1. Период сообщения о нахождении вне страны: 2019.11.17 - 2020.2.15

2. К кому относится: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лет, намеревающиеся голосовать за рубежом

3. Способ сообщения 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через Интернет (ova.nec.go.kr)
  - личное посещение консуль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Ленина, 283Б)
  - через почту/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ovyuzhnosakhalinsk@mofa.go.kr)
4.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выборов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사할린 청소년들을 검도부에 초대

사할린주 검도 선발전 준비 스포츠 센터가 11세 - 14세까지의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2020년 첫 검도 일반 초급과정과 장래 예비 선발전에 입적을 위한 검도 초급 준비 과정을 공지했다. 강습은 무료이며 <2015년 - 2020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지쿠 스포츠 및 체육문화 발전' 지방 프로그램 실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사할린 검도연합회가 전했다.

문의전화 : 8)914-755-22-36(WhatsApp). 사전 지원 신청서는 메일 sakhalinkendoclub@gmail.com 으로 보내야 한다.

## Сахалинских подростков приглашают в секцию кендо

Центр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ендо объявляет первый в 2020 году набор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11-14 лет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общей начальной и нач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о кенд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зачисления в резерв сборных команд.

Об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2015-2020 годы", сообщает ассоциация кендо Сахали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914-755-22-36 (WhatsApp).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явки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лять на почту: sakhalinkendoclub@gmail.com.

## '크리스탈' 빙상장으로 초대

스포츠 학교 '크리스탈'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리는 '빙상의 밤'의 일환으로 스포츠와 불규칙적 야간 취미 애호가들에게 스케이트를 타며 활동적이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초대하고 있다.

날짜 : 매주 토요일 (2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개장 시간 : 22:00, 23:00, 00:00시.

이용 시간 : 45분.

이용 회기마다 빙판 복구 작업을 위해 휴식 시간이 있다.

스포츠 행정처는 '빙상의 밤' 시행 기간에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음주자는 빙상장 이용 불가.

전화문의 : 8(4242)240-160, "크리스탈"이 전했다.

## "Кристалл" зовет кататься на коньках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Кристалл" приглашает поклонников спорта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ночных развлечений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активно и с пользой, катаясь на коньках в рамках "Ночи на льду" на крытой ледовой арене.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каждая суббота (ближайшие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1, 8, 15, 22, 29 февраля).

Время начала сеансов: в 22:00, 23:00, 00:00.

Длительность каждого сеанса — 45 минут.

Между сеансами сделаны перерывы для работы ледозаливочной машины.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портив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апоминают, что дети до 18 лет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Ночи на льду" с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только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родителей. Лица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на ледовую арену не допускаются.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40-160, сообщает "Кристалл".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사 배 워터리아 사장의 고모 배성숙 씨께서 병환으로 인해 2020년 1월 24일 87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별세하였음을 부고합니다.

비에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 인회의 노인정 다니시던 배성숙 씨가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인정 할머니들 모두 비에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할머니들

## EDA.SAKH.COM

###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http://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터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